

#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7  
Jul. 2019  
Vol.7 No.6

- 주안에만남 / 새가족
- 한글학교 불학기 종강
- 목장 소식
- 교육부 / 간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성경이 기록된 의도와 목적을 따라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주안에빛'에 참가한 성도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양영 기자>

## ‘성경 66권이 보석구슬처럼 꿰어졌어요’

### ■ 주안에빛 캠프

독립기념일 연휴로 주변의 모두가 들떠있을 때 주안예교회에서는 또 한번의 야심찬 행사가 진행되었다. 7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 동안 “Murrieta Hot Springs Christian Conference Center”에서 열린 “주안에빛”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주안에빛”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전체 66권의 성경을 시간과 공간의 배경에 따라 자세한 풀이를 들으면서 성경의 이해는 물론이고 좀 더 깊이있는 지성을 키우고, 그와 병행할 수 있는 영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그 분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기회를 얻기가 힘든 아주 귀한 프로그램이었다.

약 240여명의 교인들은 모처럼의 달콤한 휴식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씌어진 성경의 참 뜻을 정확하게 배워보려는 열정과 소망으로 부푼 가슴을 가지고 참석했다.

<9면에 계속> | 오희경 기자 |





■ 어버이주일



6월 23일 주일예배가 끝난 뒤 벨리채플과 MP 채플에서 “노후 준비 세미나 2”가 있었다. 벨리채플의 알렉스 함 집사님께서 예배를 끝내고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다.

내용은 40-60세의 Small business 하는 분들이 들으면 더더욱 좋을 내용으로 Tax Benefit 으로 은퇴 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었다.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교회 안에 이런 전문인들이 계셔서 전문가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가족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미국도 대통령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들어 두어야 할 것 같다.

지식으로 미래를 설계해서 자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노년이 되기 위해 부지런히 배우고, 준비하는 주안예교회 식구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캠퍼스를 나섰다. | 이예스더 기자 |

■ 사회복지 세미나



지난 6월 2일 벨리와 MP 각 채플에서는 가주 사회복지세미나가 열렸다. 강사로는 벨리의 노재덕 집사님께서 수고하여 주셨는데, 13년째 연방 공무원으로 소셜 오피스에서 근무 하시므로 누구보다 정확하고 상세히 설명하여 주셨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마련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나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의 세 가지만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셨는데 첫 째는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절차 및 인터뷰 시에 조심할 것 등을 알려 주셨다. 두번째는 의료혜택인 메디칼에 대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또 메디케어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고 메디칼 받는 분들께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등도 알려주셨다. 세번째는 칼포레스 일명 푸드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주셨다. 주의할 점은 신청시 잘못된 서류나 인터뷰 등이 기록으로 남으면 고치기가 매우 어려우니 차근차근 잘 준비하도록 조언하셨다. | 임용자 기자 |

아름다운 숲길 함께 산행하며 친교의 시간 나뉘

■ MP 채플 안수집사회

6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전 7시에 MP채플을 출발하여 Santa Anita Canton에 있는 Chantry Flat 에 도착했다.

이 야외회는 2019년도 들어 처음으로 안수집사회에서 친목을 도모하고자 모이게 되었으나, 급한 광고로 안수집사들이 많이 모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당일 권유하여 권사님 세분과 김영기 장로님께서 합류하시어 더 큰 기쁨이 되었다.

산을 조금 오르자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도 장관이었고, 숲이 우거져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만끽하며 모처럼 상쾌한 하루를 보낸 것 같다.

각자 준비해 온 음식과 권사님들이 맛



있게 해오신 음식이 더해져 너무 배부르게 먹었다. 먹고 얘기하다 보니 벌써 하산 시간, 다음날이 주일이기에 너무 늦게까지 있을 수 없어 1시 30분경 하

산했다. 다음 모임에는 시간을 잘 조절하여 더 많은 안수집사님들이 참여하여 친목을 다지게 되었으면 한다.

| MP채플 안수집사회 민창식 회장 |



■ 드림목장(밸리) 소풍



## 모처럼 나들이 “실컷 웃고, 잘 먹고 즐겼어요”

지난 6월 22일 토요일에 드림 교구에서는 샌디에이고 지역의 커버랜드 포레스터 파크와 엘시노 레이크를 다녀오셨다.

편도 3시간 정도의 장거리 드라이브인만큼 버스 안에서 노래, 퀴즈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며, 특별히 보람 되었던 것은 60여분이 소풍을 떠나셨다.

평소 많은 분들이 교통편이 없어 가까운 곳도 다녀오시기 어려웠는데, 아름다운 숲

과 맑은 공기, 그리고 예쁜 꽃들을 보니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어떤 장로님 부부는 자녀가 없는데 주안예교회에 내 아들 딸 노릇을 해 주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니 가슴이 찡하고 뭉클 하였다.

얼마 전에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두분의 집사님께서는 평생 함께 한 친자매처럼 두 손을 꼭 잡고 다니시며 집에서 혼자

살자니 지붕이 뺨 뚫린 것 같은 심정으로 사시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잘해 주셔서 외로움이 훨씬 덜하다고 고백 하신다.

부패에서 맛있게 점심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는 엘시노레이크에서 기념사진 등을 찍고 다음 가을소풍을 기다린다고 좋은 추억 봄나들이를 준비하여 주신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 임용자 기자 |



■ 얼굴 없는 봉사자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밸리채플 파킹랏을 수리하기 위해 갈라진 틈을 고압 물 호스로 씻어내는 이분... 하루종일 땀별 아래서 복면가왕처럼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수고하고 있다.



## 밸리 유스필 오케스트라 10주년 연주회 성황

지난 6월 9일 밸리 유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스프링 콘서트를 주안예교회 본당에서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엇그제 시작한 것 같지만 한결같은 연주로 10년이 된 오케스트라는 오늘 20번째 연주회를 가졌다.

유난히도 더웠던 날 초저녁에 듣는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음악은 청량음료 같아서 우리를 삶에 일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도 생긴다. 첫 곡으로는 Sergei R. 의 피아노 콘체르토 넘버 투를 오프닝곡으로 연주 하는데 웅장하고 아름다운 피아노와 오케스

트라의 어우러진 선율은 우리를 상상의 유토피아로 데려 가기에 충분하였다. 다음곡은 카르멘의 힘차고 씩씩하며 격조 높은 음악으로 안내 했으며, 마지막 곡은 고향의 봄으로 끝마쳤다. 모든 연주가 끝난 후 교회 친교실에서 350여명의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하였다.

구자형 단장을 비롯한 모든 멤버 들께서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주안예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하셨습니다. | 임용자 기자 |





■ 한국 선교보고

복음의 빛을 갠으며...

30여년 전인 1996년, 3박4일간의 말씀사경회에서 예수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복음의 빛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

선교공동체를 도와 이 복음을 깨달은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에 복음전과를 위해 5대양을 넘어 6대주를 다니며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영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born again 하는 모습은 내 안에 계신 성령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보람이며 행복이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복음전파이기에 언제나 100% 개인자비로 선교의 길을 떠났고, 지금까지 가장 인상에 남았던 선교지는 공동체에서 전세기를 빌려 팀들과 함께 떠났던 멕시코 치아파스 선교이었다. 우리나라의 60년대를 방불케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전과를 하고 난 몇 년후, 멕시코에서 복음전과와 활성화가 가장 빠른 곳이 치아파스라는 통계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손과 발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겠다고 하니 그저 송구스러울 뿐이다.

40년이 되도록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공동체가 이제는 한국교회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한국에서만 말씀사경회를 열고, 다른 지역에서는 영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올 해로 206회를 맞이하는 사경회에는 전국 각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신학생들과 교회리더들 그리고 7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까지 461명이 참석했다. 거기에 참석자들을 돕는 140명의 팀들까지 약 600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는 물론 한국교회와 온 민족의 영적부흥을 위해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활하심을 구했다.

교회의 리더이신 목사님들의 개혁으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정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느끼는 사경회였다. 이 귀한 복음사역이 한국교회의 회복은 물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온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더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린다.

| 박경숙 기자 |

■ 보내면서... 떠나면서... / 김명자 권사(MP채플 교육부)

주어지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

10년 가까이... 저에게 그리 길게 느껴지는 시간은 아니지만, 한편으론 김명자 부장님과 겪어왔던 수많은 삶의 순간들을 되짚어보면 너무나 큰 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장님은 처음 교육부 학부모님으로 만나 관계가 시작이 되었고, 가족같은 지금의 관계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맺으셨는데,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되신 큰 이유 하나 나눕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 같은 자리에 안주하지 않으신 분”으로 새겨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늘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놓은 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실 것으로 믿어집니다. | 니콜 이 전도사(MP채플) |



내 삶, 하나님의 테바처럼 되길...

| 김명자 권사 |

13년간의 캐나다, 미국에서의 시간을 지나 떠나왔던 그자리로 다시 회귀하여 하루 하루의 일상에 적응하고 있는 새로운 감사의 시간들입니다.

다섯 살 딸 아이의 손을 잡고 한 해만 지내다 오려니 하고 떠났던 시간이 13년으로 채워진 여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떠날 땐 더 이상 어찌 흔들할 수 없는 인생에 숨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던 그때였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온통 어둠으로 덮여 전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어느 순간 내 영혼을 숨쉬게 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만나 주신 여호와 하나님. 호흡과 생명의 주체가 내가 아닌 온전하신 그 분, 유일하신 그 분을 향하여 눈이 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입혀 주시고 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교회공동체의 성도로서, 삶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제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입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먹고 마실 육의 생계를 찾아 아홉살이 되었던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캐나다에서 미국 땅으로 옮겨왔었습니다. 나로서는 분명 육의 생계를 위해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놨지만 뒤를 돌아보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통해 믿음을 넣어주시고, 진리의 교회공동체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신 만남으로 인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제 영혼에 진리로 날마다 때마다 채워주시어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감당케 하심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소원하는 심령으로 저의 생계의 순서도 바꾸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또 인생의 다음 장을 향한 시간의 선상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여정이라는 배를 항해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과정 과정마다 배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배가 하나님께서 동력이 되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방향과 속도가 맞추어져 나아가시는 주의 시간이 되는 테바로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 2세 새가족 소감/ Tom & Laura Park Family

## 대대손손 믿음의 유업 잇기를 꿈꾸며...

Tom and I grew up in the first generation Korean church - served together in various capacity in our youth and also met each other as God's answered prayer for marriage.

As a young couple we committed to a second generation church plant to support our pastoral friends and journeyed through its peaks and valleys. When that chapter in our faith walk ended, we spent a few years at a local mega church, enjoying a season of rest. As our toddler daughter began to grow older, we felt the urging to leave the comfort of passively attending services and to find community where we can get plugged in.

Our hearts turned to the Korean church for many reasons: From the Korean church, we learned the devotion of dawn prayer and the discipline of overnight prayer. We saw what it meant to put faith into action through the sacrifice of time and resources, even when immigrant life wasn't plentiful. We felt the care and concern of church leadership for the next generation. We experienced the life changing power of God's word and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 body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perhaps the most nostalgic, delicious large batches of church gook-bap!

In all earnestness, we wanted our family to grow where we can learn from the perseverance of multi-generational faiths, even with its bumps and bruises. We felt our eldest daughter could adjust well at ICCC given she has two sets of grandparents here: my parents and the set of grandparents that helped raise her.

Tom and I are also grateful for the biblical preaching. God loves this church to instruct, reprimand, and draw us to love Him more, to adhere our hearts to His heart. Thank you for welcoming us with open arms. We look forward to doing In Christ Community with you!



톰과 저는 어렸을때 부터 1세한인교회 문화 속에서 자랐고, 유스 사역도 함께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준비해 주신 베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2세 중심의 교회에서 친구 사역자들을 도와 그 교회가 안정되기를 힘쓰며 즐거운 시절도 힘든 시절도 함께 지나왔었습니다. 그 후로는 집 근처에 규모가 꽤 컸었던 메가처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난 후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안식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편안함을 쫓아가기 보다는,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1세교회로 향하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다녔었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새벽기도와 철야기도의 중요성과 그 시간 안에서 자라나는 영성과 헌신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민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벅차더라도, 믿음과 신앙생활을 삶의 1순위로 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보낸 그 시간속에서 차세대 한인교회 리더십을 양성해 가는 비전에 대해 많은 생각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안에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던 변화들을 주도해 가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성령님의 역사-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교회라면 빠질 수 없는 맛있는 국밥도 한가지 이유였지요!

우리는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대대손손 내려오는 믿음을 유업으로 가진 성도님들께 배울 수 있는 장소-심지어 그들이 영적으로 실수했던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배움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곳.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고 우리를 바로 이 주안에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제 첫째 딸도 주안에교회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길러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같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안에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가르치는 권세를 주시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그 분께 더욱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에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분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을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계속될 교제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 *Morning Prayer....*

"All-knowing Lord, you see what is in my heart. All-powerful Lord, I don't have the power to accomplish what needs to be done, so I spread out my requests before you. All-wise Lord, I know you hear and will act—but I know also I must wait on your wise timing, and so I will. Amen."



■ Karis 필드트립

## 목장으로 꾸며진 박물관 찾아 1800년대 체험학습

6/22(토) 카리스 첫학기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종강일에는 칼라바사스에 위치한 Leonis Adobe Museum을 방문하였는데요, 1800년대 캘리포니아 Ranch(목장) 라이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약 20명의 아이들과 5명의 선생님들이 토요일 아침 벨리채플에 모여 한껏 들뜬 모습으로 박물관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박물관이어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박물관 전체가 미국 목장스타일로 전시되어 있는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농기구들과 여러가지 동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옛날식 빨래 건조대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손수건을 빨아서 Roller를 이용한 건조대를 사용해 빨래를 널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간단해 보이지만 옛사람들의 기발한 발명품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직접 염소와 양에게 풀을 먹여보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코 끝을 찡그리며 냄새가 난다고 다가가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어느새 하나 둘 자기가 해보겠다며 동물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먹이를 주는 모습이 함께해주신 모든 선생님들의 기억속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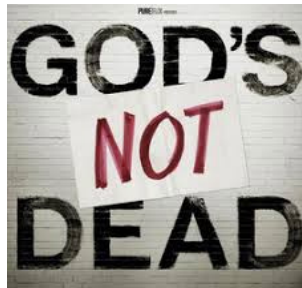
교회에 돌아와서는 권사님들과 목회부에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햄 샌드위치와 볶음밥, 수박을 먹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이번 카리스 학기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 주방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토요일을 아끼지 않고 교육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해준 벨리 ICY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들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 김민재 전도사 |

■ Movie Review/ God is Not Dead

'stand alone on God's side...'

Have you seen a good movie lately? This summer, there are plenty of blockbusters for everyone. But which one is best for to watch? I recommend "God is not Dead", which is now on Amazon Prime. The film follows a Christian college student (Harper) whose faith is challenged by a philosophy professor (Sorbo) who declares God a pre-scientific fiction. It's the debate of the ages, this time in a college classroom, and the verdict will be life changing. Atheist Prof. Radisson opens the first day of class by proposing that, in order to forgo "dusty arguments" and failing grades, students may hand in a piece of paper declaring that "God is Dead". Josh Wheaton, a Christian is unable to bring himself to make such a declaration and must defend his faith to prove to the class that God is not dead after all. What would you do if you are in Josh's shoes? Will you have the courage to stand alone on God's side in the midst of worldly opposition? This movie will reignites your resolve for God's truth and love!



| Simon Cho 기자 |



■ 한글학교 불학기 종강식

지난 6월 15일 주일예배 후 한글학교 종강식이 있었다. 불학

기를 끝마친 여섯 반의 37명 학생들과 일곱 분의 한글 학교 선생님, 그리고 뒷바라지를 해주신 권사님 한 분 등이 수고하여 주셨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에 대하여 장은경 교장 선생님과 미니 인터뷰를 해 보았다. 이번 학기에 목적했던 내용 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가르치고 배우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고 하셨다.

한글을 위주로 공부 하였지만, 설, 삼일절, 식목일, 어머니날, 아버지 날 등을 한국적인 관점에서 공부하였으며 특히 삼일절 날의 기념식 등을 통하여 역사 공부를 이해시켜야 하기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에 대하여 영어로 설명해 주기도 하였고,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느낀 점 쓰기, 속담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등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만전을 기하여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심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종강식에서는 전교생에게 수료증을 증명하였으며, 다수의 정근상과 5명의 개근상장이 수여되었고, 또한 성적표 및 각 반 담임선생님의 소견서 등이 부모님께 배부 되었다. 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를 위하여 방학을 잊은 채 지금도 미팅을 가지며 준비하시는 한글학교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임용자 기자 |



■ 7월 20일(토) VBS

## ‘저녀들을 바울의 선교여정에 동행시켜 주세요’

이번 여름성경 프로그램으로는 하루의 시간을 모두 함께 보내면서 바울의 전도와 그때의 분위기를 체험해 보며 배웁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감옥을 들어가 보고, 바울이 말씀을 담대히 외치던 회당에서 나도 말씀을 외쳐보고, 나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신 복음을 접해보고 전해보는 기회, 아테네를 연상케 하는 장터에서 입어보고, 먹고 만들어 보는 체험들을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자 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느끼기를 원하고 나의 예배자리에서 나아가 이웃을 향해 마음을 넓혀 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 일정은 하루지만 이미 찬양을 통해 부분적 VBS를 맛보고 있고,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보면서 6월초부터 밑작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스태프, 부모님, 성도님들의 손길로 함께 만들어 가는 VBS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신앙의 추억이 새겨지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기쁜 시간들로 채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찬양을 통해 이미 시작된 시간들 속에서도 아이들이 은혜받

도록, 선생님들, 스태프들, 부모님들, 유스학생들, 봉사자들 VBS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 안에서 기쁘고 힘을 얻는 가운데 진행을 도울 수 있도록, 당일의 예배, 체험적인 여러 활동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좋은 추억이 되도록... 감사합니다.

〈체험해 보는 바울의 전도여행〉 7/20(토) 9:30AM-4:30PM, 주안예교회 벨리채플, 대상: 3세-5학년, 회비: \$15/1인, \$10/형제 | 이니콜 전도사 |



### ■ 파더스데이 행사



6월 16일 Father's day에 IC KIDS&JOY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었다. 제목은 '우리 아빠~' 모두 한 목소리로 '아빠 사랑해요~'





■ 주안에빛 캠프



성경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3박4일 함께 하면서 성도님들간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됐다. <양영 기자>

## 하나님의 나라 · 구속사 · 거룩한 계보 · 사랑...

■ 주안에빛 캠프 참가자들 소감

**박이안 집사(MP)**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혹해서 참석했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한 눈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즐기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보고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송서현 성도(MP)** 남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지만 강의를 한 번, 두 번 들을 때마다 몰랐던, 헛갈렸던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성경을 전보다 좀 더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한신 집사(밸리)** 처음 주안에빛을 신청한 후 잠깐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물따말' 우리 목사님 준비하신 주안에빛 캠프인데 하며 온 가족을 데리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도 너무나 간략하지만 성경의 체계가 잡혀가는 제 스스로의 모습에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황성남 집사(MP)** 그 동안 어렵듯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던 성경의 서사들을, 시간과 공간을 축으로 하여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구절마다 오롯이 스며있는 기록임을 다시 한 번 배우고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세희 집사(밸리)** 주안예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캠프를 다녔지만 이번 주안에빛 캠프는 더욱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18주간 풀어가던 주안에빛을 목사님은 과연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되었고 첫 강의부터 눈앞에 그려지듯 구약의 배경을 설명해주시니 이해하기 쉽고 재밌는 강의였습니다. 성경통독을 하며 조금 답답한 마음이 많았는데 이번 주안에빛을 마친 후는 더욱 쉽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출민수샷삼 왕대스야~~



**민창식 안수집사(MP)** 올라온 동기는 친구와 하나님 말씀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함이고요, 막상 와보니 최목사님의 명강의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과 지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들여다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잊어 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김선자 권사(밸리)**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씀을 서두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전체 말씀을 준비하셔서 알려주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이 또 한번 놀라웠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암기할 수 있는 지혜와 시대적 배경 포로시대, 공간 개념, 등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정립되는 가장 소중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번 주빛 시간을 통해 말씀을 보는 관점 또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루터기도 함께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에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 주안에빛 캠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모습 (양영 기자)

## 관점이 바뀌니 성경의 흐름이 한 눈에 잡혀요



**윤미라 피택권사(벨리)** 담임목사님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한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전체를 4가지 관점에서 읽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되어 살기를 원하시며, 아무리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한 사람을 그루터기로 남기셔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만드시 이뤄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나 까지도 포함되 어있음을 믿으며 그 여정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  
 <1면서 이어> 담임목사님께서 직접 세미나 형식으로 이끌어 가신 '주안에빛' 은 창세기를 시작으로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넘기지 않으시면서, 그동안 풀지 못하고 쌓아 두었던 궁금증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기적의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전익성 안수집사(벨리)** 하나님 의도를 따라 성경 보기를 한다는 소식에 무조건 등록부터 하고 7월 3일 부터 3박 4일 동안 무리에타 갈보리채플 수양관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의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4가지 관점을 깨닫고 성경 속의 인물들을 알게 되었고 시간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번 주안에빛을 통하여 성경을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관점' 으로 성경을 이해하도록 풀어주시신 4가지의 관점을 배움으로, 알팍한 지식에 의지한 채 성경을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어리석음은, 최소한 범하지 않게 되었음에 다행스러움과 감사함이 밀려왔으며, 어떠한 심판의 시간에도 항상 회복을 위한 한 줄기의 그루터기는 남기셔서 당신의 계보를 이어가시려는 섬세하심을 배우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그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해 보기도 했다.

**구자형 피택권사(벨리)** 바쁜 스케줄 가운데 때때로 휴가시간과 딱 맞아 뜻깊은 주안에빛에 참가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구약 성경을 이번 기회에 상세하게 배우면서 많은 이해를 얻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안에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더 깊게 배우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이번 기회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려고 애쓰셨던 목사님도,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큰 맘 먹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길을 어렵게 선택했던 성도들도,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설레임과 충만함을 마음 한가득 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렸으며, 모든 준비에 조금의 소홀함도 허락치 않으셨던 목사님께도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린다.



■ 주안에만남(MP채플)

오붓한 대화, 행복한 한가족

그 동안 예배 장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주안예교회의 새 식구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출석 중인 분들을 위한 MP채플 '주안에만남'이 지난 6월 2일 오붓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예배를 마치고, 모두에게 휴식이 필요한 주일 오후였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몇 분을 제외하고 모두 6명의 새가족 분들과 19명의 새가족 팀을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이 참석하여서 그야말로 가족같은 만남이 이어졌다.

우선은 순전히 새가족 봉사자들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고급 레스토랑의 수준에 버금가는 상차림으로 참가자들의 시각과 미각이 사로 잡혔고, 황중훈 집사님의 찬양 인도와 박찬경 집사님의 색소폰 연주로 청각 또한 활활함을 맛보았다.

식사 후 이어진 목사님의 교회와 목회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주안예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관심과 열정으로 빈 자리를 메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헤어집의 인사를 나눌 때는 벌써 새가족이라기 보다는 매 주 만나는 익숙한 표정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시는 모습에서 주안예교회의 미래를 엿볼수 있었다. | 오희경 기자 |



김리아 성도



심경란, 심홍섭 집사



김명균 장로



이영선 권사, 이구영 안수집사

■ 주안에 말씀

말씀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라 단 한번도 성경 통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려고 여러번 시도는 했지만, 요약조차 다 끝내지 못하고 포기했던 것이 수십번이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성경 통독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주안예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안에말씀이 있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지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과 내가 과연 성경통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 후 집에 와서 숙제를 해야하는 생각에 솔직히 그냥 안하고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집에서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했습니다. 읽기 전에는 숙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귀찮은 마음에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난 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 위로를 해주셔서 회개를 하며 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몇 개월 간의 주안에말씀의 끝이 다가오면서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 속에서 치어 살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의 자리로 결국 찾아가게 하였고, 주님은 또 주안에말씀을 통하여 제가 심적으로 공허하고 힘들 때 자연스럽게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 많지만,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주님은 결국 말씀을 통해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였고, 결국 제가 주님을 다시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들을 주셨고, 되돌아보니 그 상황들마저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외면했던 시간들마저도 주님은 저를 계속 기다리시며 저를 여전히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의 상황들이, 나의 미래가 막막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양하민 성도(MP)

■ 주안에 생명

영적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주안예교회를 오기 전까지 저는 믿음이 없이 주일에 가끔 예배만 참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주안예교회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은혜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복음을 접할 수 있지만 주안에생명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크리스천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이번 주안에생명 3기에서 사단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동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또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듭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안에생명 훈련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그냥 단순히 쓰여진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며 제 안에 있던 궁금중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있을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 늘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을 살아내도록,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김윤기 성도(MP)



■ 목장소개(밸리 8목장)



'앞서거나, 뒤쳐짐 없는 한가족'

처음 교회 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의 이유는 우리 삶의 다양성 만큼이나 같은 듯 다른 이유들과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8목장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까지의 이야기는 어느 핫한 수목드라마 만큼이나 스토리 라인이 다이내믹하다. 목장이 그 분들인지 그 분들이 목장인지 경계가 불분명할 만큼 목장 식구들을 챙기는 배진호장로 내외를 기동삼아 8목장 식구들은 지난한 세월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매주 설교를 기초한 나눔은 말씀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러브레터를 확인하고 일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기에 모든 목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다. 나를 지지해 주는 멈추지 않는 시련과 고난을 위로받는 자리이자 함께 중보함으로 격려와 새 힘을 주고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준다.

이러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에 목원들은 삶에 다친 모든 것들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며 시련과 고난은 함께 나누어짐으로 목원들 중 누구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앞서는 사람도 뒤쳐지는 사람도 없는 참된 주안에 한 가족이 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보다 4배 이상 큰 캘리포니아에서 혈혈 단신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는 목장 식구들이 곧 친정식구가 되어버려 이제 주안예교회가 내 고향이 되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고 슬픈 일이 생기면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진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그렇게 나누 수 많은 기도제목이 목장식구들의 중보를 통해 답을 찾은 나와 하나님, 목장식구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기에 8목장의 내일은 오늘 보다 더 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롤모델이 되고 있는 8목장에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실 것과 환난중에 더욱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목장식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실감나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한다. | 채은영 피택권사 |

■ 초보엄마 5개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에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내는 상황과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하늘이와 나라가 태어난지 두어달쯤 지나 이 찬양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혼자였을 때, 그리고 결혼 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지만 아이들을 낳고 같은 엄마로서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그 어린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너무도 애잔하게 느껴져서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부모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고작 5개월 차 엄마로서 장성한 자제분들을 이미 다 키우신 분들에 비할 수 없겠지만, 이제 갖 엄마라는 자리가 주어진 저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님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가 된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손가락 하나 하나 꼼지락거리는 것도 마냥 귀엽고 다른 애들 다 하는 구르기 그리고 별 거 아닐 수 있는 이가 나는 것도 전부 다 기특하

요게벳의 심정  
부모님 마음  
배우고 있어요

김혜민 성도(MP채플)



고 새로우며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편으론 무지하고 경험없는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보고 웃어주고 좋아해주는 아이들을 보며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노력하게 되고 힘들어도 힘을 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또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모두 포기하고 자식들을 위해 이민이라는 고생을 선택하셨음에도 그 선택 속에서 자식이 겪었을 작은 어려움과 상처를 오히려 걱정하시고 미안해하시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사랑과 노력을 전부 주어도 자식에게는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하는 몸짓과 짓는 표정 그리고 중얼거리는 웅얼이를 듣다보면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곤 합니다. 고작 열 달을 기다리고 품다가 나온 아이들도 하루종일 얼굴만 보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나 사랑스럽고 마음이 가는데, 아주 먼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직접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어떤 마음이실까 감히 다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깊이를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웅얼이에도 하나하나 대답해주고 듣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전부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마음이 향하실 지 말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제 마음에는 비할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앞에 너무도 작은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저 대신에 크신 하나님께 오늘도 제 아이들을 드립니다.

요게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 엄마가 된 제 고백이자 다짐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 다육식물 기르기(1)

물기 잘 빠지는 땅, 많은 햇빛에 잘 자라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고 사랑을 나누는 방편으로 실내의 식물을 가꾸고 재배하는 일이 요즘 일반화되고 인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다육이를 키우는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종류도 다양한데다 비교적 다른 식물에 비해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다육이는 다육 식물을 재미있게 부르는 애칭인데 앞이나 줄기 뿌리에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통

틀어 다육식물이라 합니다. 선인장(cactus)과 다육식물(succulent)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육식물에는 선인장과, 용설란과, 돌나물과 등 여러 분류가 있고 대략 2만 종류가 있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3회로 나눠 소개하려합니다.

다육이의 일반적인 관리법

1. **빛:** 다육 식물은 대개가 사막지역이 원산지 이므로 빛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도:** 밤에는 서늘하여 55 °F 내외 낮에는 75~85 °F 정도가 좋은데 45 °F 까지 견딜 수 있다.
3. **물 관리:** 다육이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는 것이 좋지만 성장기인 여름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휴면기인 겨울 동안엔 월 1회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한 번 주고 물이 완전히 마른 후 다음 번 물을 충분히 줍니다.
4. **토양:** 다육이는 물이 잘 빠지는 토양(Cactus soil)을 좋아하므로 배수가 잘 안 되는 흙에는 perlite를 섞어주면 좋습니다.
5. **거름:** 거름은 성장기인 여름 동안에 1~2회 주도록 하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나형철 기자 |

■ 포토에세이

나도 주일이 좋다, 왜냐구?

나는 LA 동물원에 사는 원숭이다. 내 친구들은 나를 원돌이라 부른다. 난 오늘 아침 아주 일찍 일어났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란 바나나를 간식으로 받는 날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을 받아 먹는



다. 사료도 먹기는 하지만 그건 배가 아주 고프면 억지로 먹기는 하는데 바나나보다 더 좋은 간식은 없다. 내 친구 원순이는 바나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주로 빼앗아 먹는다. 잘 익은 바나나나 덜 익어서 푸르스름한 것이나 나한테는 모두 다 맛있다. 내가 바나나 주는 아저씨한테 아주 멋진 스티커를 보내면 어쩔 땐 하나를 더 엑스트라로 준다. 그래서 난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이 제일 즐겁다.

| 글, 사진: 최호기 기자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안에” 2019년  
8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철, 나형철, 박경숙,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터, 임용자, 임종구,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2019년부터는 주안에신문이 매달 초에 미리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